

전도서 11:1의 교훈적 해석, 탈굼 코헬렛 תרגום קהלת

서문-전통적인 해석

"너는 네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전 11:1)는 그 뜻을 이해하기 어려운 성경구절이다.

우리말성경 표준새번역에서는 이말을 "돈이 있으면, 무역에 투자하여라. 여러 날 뒤에 너는 이윤을 남길 것이다"라고도 번역을 했다. 이 번역은 전 11:1을 경제적인 충고로 받아들이는 것인데, 현대의 학자들 중에서는 고디스(Gordis), 짐머리(Zimmerli), 크렌쇼(Crenshaw), 머피(Murphy)와 같은 학자들이 이 견해 동조한다. 이 학자들은 "빵" לחם을 "무역"으로 번역하고, "물 위" פני מים이라는 말을 "바다를 건너"라고 의역하였다. 이들은 이 구절을 2절과 연결시켜서, 경제적인 조언으로, "돈이 있으면, 무역에 투자하되, 분산하여서 투자하라"고 가르치는 구절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לחם을 "무역"으로 번역한 예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무역이라고 번역하기를 주장하는 학자들은 견해는 큰 설득력을 얻지 못한다.

이에 반해서 세아우(C.L. Seow)는 이집트 문헌 *Instruction of Ankhsheshonq*의 예를 들어서, 이 구절이 의미하는 바는 선행을 독려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선행을 하여라. 그리고 그 선행을 물에 던져버려라. 그 물이 다 마르면 네가 다시 그것을 찾을 것이다 (AEL III:174).¹ 그리고 호만(Michael M. Homan)도 선행에 대한 가르침을 목적으로하는 아랍인들의 이야기 가운데에서 무하마드 벤 하산(Muhammad ben Hassan)의 예를 들어 전도서 11:1가 선행을 가르치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한다: 무하마드가 빵을 무심코 강에 던졌는데, 칼리프 무타와킬(Mutawakkil)의 아들이 마침 난파되었던 차에, 그 빵을 먹고서는 간신히 목숨을 살려서 그 빵이 무하마드가 던진 것임을 알고 무하마드에게 상을 내렸다.²

호만은 전 11:1이 술빚기와 절체절명의 시간을 넘기기에 대한 이야기로 이해한다. 빵과 종려나무 열매를 이용해서 술을 빚는 아카드의 설화에서는 양조의 특별한 기술가운데에서 *nadū*라는 행위가 있는데, 이것은 "던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호만은 전도서 11:1에서 "빵(직역)을 물위에 던지라"는 표현이 술을

1. Seow, C.L., *Ecclesiastes* (AB 18C; New York: Doubleday, 1997), 341-44.

2. Michael M. Homan, "Beer Production By Throwing Bread Into Water: a New Interpretation of Qoh XI 1-2," *VT* 52[2] (2002): 275-78

빛는 행위로 이해하였고, "술을 빚어라,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마셔라, 그러면 네가 악한 것들이 오는 것도 모를 것이다"라고 해석할 것을 제안한다.³

나는 이 페이퍼를 통해서 이렇게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을 두고, 유대인들은 어떻게 이해하였는가를 연구하려고 한다. 전도서(이하 코헬렛)의 본문을 해석한 구절가운데에서 부피있게 남아있는 (성서를 제외한)유대교의 문헌은 코헬렛 라바 (קהלת רבה, 이하 *Qoh.Rab.*)와 탈굦 코헬렛(תרגום קהלת, 이하 *Tg.Qoh.*)이 있다. 특별히 나는 교육적인 목적으로 기록된 탈굦 코헬렛이 전 11:1을 어떻게 설명하였는가를 알아보고, 왜, 그리고 무엇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석하였는지를 연구한다.

Tg.Qoh.과 형성과정

*Tg.Qoh.*은 전형적으로 팔레스타인에서 기록된 탈굦의 형식을 가지고있다: (1) 미드라쉬가 첨가되었으며, (2) 성서를 해석적으로 바꾸어 읽는다. "탈굦"은 그 어원인 아카디아어 *targummanu* (Trans. Translator)가 보여주듯이, 히브리어 성서본문의 번역이다. 하지만 랍비 히브리어 (Rabbinic Hebrew) 에서 תרגום은 "번역하다" *translate*뿐 아니라, "설명하다" *explain*의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다. 이것은 탈굦이 히브리어 성서의 번역이자 해석이이며 주석이였다는 것을 말한다.⁴

모든 탈굦은 교육적이다. 마찬가지로 *Tg.Qoh.*도 교육적인 (Didactic) 목적에서 기록되었다. 탈굦이 가지는 교육적인 목적은 단지 이해하기 힘든 구절을 풀어써주기 수준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다. 풀어쓴 성서의 탈굦을 통해서 탈굦을 기록한 저자, 또는 탈굦을 수집, 편집한 저자는 탈굦을 읽는 유대인들에게 교훈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 그 메시지를 실천하도록 독려한다는 목적이 있다. 그러므로 탈굦 안에는 (1) 성서의 문자적인 번역과 함께 (2) 성서의 원문에는 없는 이야기들이 교육적인 목적으로 함께 담겨있다. 이 탈굦의 전통을 *Tg.Qoh.*도 그대로 가지고 있다. 따라서 *Tg.Qoh.*는 (1) 성서의 아람어 번역이자 (2) 성서의 미드라쉬 *מדרש*적인 해석이며, (3) 교육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⁵

3. Homan, "Beer Production By Throwing Bread Into Water," 275.

4. Philip S. Alexander, "Targum," *Anchor Bible Dictionary* 6: 320b-31b.

5. 미드라쉬 *מדרש*는 "해석" *interpreting*이라는 의미와 함께 "해석"되어진 것들을 수집한 "모음집"(특별히 *מדרש רבה*의 경우)을 동시에 가르친다. 이 미드라쉬는 형식적으로 "할라카" *הלכה*와 "아가다" *אגדה*로 나뉘어지는데, *Tg.Qoh.*은 아가다의 요소가 강하다. 특별히 전 11:1의 본문은 아가다로 분류된다. 아가다는 넓은 의미에서 비유나, 신화적인 서술, 윤리적인 서술, 또는 설교로 분류되는 문학의 장르이다. 그러므로 아가다는 (교훈적인) 목적을 가진 이야기라고 할 수 있다 (Barry W.

*Tg.Qoh.*은 1517년에 베네치아에서 봄버그 (Daniel Bomberg)에 의해서 아람어로 처음으로 출판되었다. 하지만, *Tg.Qoh.*이 여러차례 출판되는 과정에서 오류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었다. 그래서 *Tg.Qoh.*안에서도 많은 사본들이 생겨났다. 1873년에 다양한 *Tg.Qoh.*의 사본들을 비교연구하여서 라가르데 (Paul de Lagarde)가 *Tg.Qoh.*의 공인원본 (*Editio princeps*)을 확정하였다.⁶ 그러므로 이 페이지에서 다루는 *Tg.Qoh.*의 본문은 *Tg.Qoh.*의 공인원본이다.

마소라 본문과 Tg.Qoh.의 본문비교

שְׁלַח לְחֶמֶךָ עַל־פְּנֵי הַיָּם כִּי־בָרַב הַיָּם תִּמְצָאָנּוּ: (MT)

אוֹשִׁיט פֶּרְנָסוֹתְךָ לְעֵינַי דְּאוֹלִין בְּסַפִּינָן עַל אִפִּי מֵיָּא אַרוֹם בְּתֵר עֵידָן יוֹמִין סְגִיאִין תִּשְׁכַּח אַגְרִיָּה בְּעֵלְמָא דְאַתִּי:

(*Tg.Qoh.*)

너는 네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표준새번역).

먹을 양식을 배를 타고 물위를 가는(여행하는) 가난한 이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여러 날 후에 그 보상을 다가올 세상에서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Tg.Qoh.*사역).

** 붉은 색은 MT의 본문을 확장한 본문

*Tg.Qoh.*은 "물 위"라는 말을 "배를 타고 물위를 여행하는"이라고 덧붙여 풀어서 설명하였다. *Tg.Qoh.*은 풀어서 설명했을 뿐 아니라, 마소라본문에는 없는 "가난한 이들"을 등장시켰다. 그리고는 "떡을 물위에 던지라"는 말을 "배를 타고 여행하는 가난한 이들에게 먹을 양식을 주어라"라고 새롭게 번역하였다. 그리고 그해야하는 이유를 "다가올 세상, 다가올 어떤 때에 다시 보상받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찾는다"는 מְצָא는 *Tg.Qoh.*에서 "보상을 받는다"로 תִּשְׁכַּח אַגְרִיָּה로 완전히 바뀌었다. 이와같은 변개는 가난한 이들에게 선행(구제)을 베풀고, 그 선행에 대한 보상이 선행을 베푼 이에게 되돌려 주어진다는 교훈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

Holtz, *Midrash* (Back to He Sources: Reading the Classic Jewish Texts New York: Touchstone, 1984), 177-212).

6. Peter Stephan Knobel, "Targum Qoheleth - a Linguistic and Exegetical Inquiry" (PhD diss., Yale University, 1976), 23.

과정에서 의미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내용을 첨가하는 것은 탈군에서는 일반적이다.⁷ *Tg.Qoh.*의 편집 또한 이 구절의 종교적인 의미(구제)를 첨가하여 분명히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전 11:1의 본문을 확장시켰다.

Tg.Qoh.의 대본(Vorlage) 추적

1517년에 *Tg.Qoh.*이 처음으로 출판되기는 했지만, 처음 기록된 것은 아니다. *Tg.Qoh.*은 이미 기록되어있는 이전의 성경의 기록이나, 유대교의 문헌을 수집하고 편집한 것이다.⁸ *Tg.Qoh.*이 자료로 삼고 있는 문헌들은 (1) 성서, (2) 미쉬나, (3) 탈무드, (4) *Qoh.Rab.*, 그리고 (5) *Qoh.Rab.*를 제외한 다른 미드라쉬들이다.⁹ *Tg.Qoh.*의 전도서 11:1 본문이 이 다양한 자료들 가운데에서 어느 자료에 근거를 두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은 다양한 자료가운데에 그 자료를 선택한 *Tg.Qoh.* 저자의 의도를 파악하는데 중요한 출발점이 된다.

7. 배철현, 타르군 웅겔로스 창세기 (서울: 한남성서연구소, 2001), 54-60.

8. Knobel, "Targum Qoheleth," 29-74.

9. <유대문헌들의 연대표>

연대	미드라쉬			미드라쉬가 아닌것
	주석적인 미드라쉬	설교적인 미드라쉬	이야기중심의 미드라쉬	
AD70-200	מבלתא 메킬타(출애굽기) ספרא 시프라(레위기) ספרי 시프레(민수기와 신명기)			
220-500				תלמוד ירושלמי 예루살렘 탈무드 תלמוד בבלי 바벨론 탈무드
400-650	בראשית רבה 창세기 라바 איכה רבה 애가 라바	ויקרא רבה 레위기 라바 פסיקתא דרב כהנא 랍비 카하나의 폐식타		
650-900	מדרש משלי 잠언서 미드라쉬 קהלת רבה 코헬렛 라바	מדרש תנומא 탄후마 미드라쉬 רבי שמואל 신명기 라바	פרקי דרב אלעזר 랍비 엘리에젤의 피르케이	
900-1000	מדרש תהלים 시편 미드라쉬 מדרש שמות 출애굽기 미드라쉬			
1000-1200	מדרש אגדה 미드라쉬 아가다		ספר הישר 세페르 하-야샤르	

Qoh.Rab.와 Tg.Qoh.의 본문 비교

이미 2장에서 말한 것과 같이 Tg.Qoh.에서는 성서의 난해한 구절을 아래와 같이 번역하였다:

떡을 양식을 배를 타고 물위를 가는(여행하는) 가난한 이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여러 날 후에 그 보상을 다가올 세상에서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사역).

Tg.Qoh.의 번역의 원형은 Qoh.Rab.에서 찾을 수 있다. 미쉬나, 탈무드에서도 전도서를 인용하면서, 할라카적인 해석으로, 또는 아가다를 덧붙여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전 11:1 전체가 온전히 보존되어서 그 의미를 풀어설명하고 있는 것은 Qoh.Rab.가 유일하다.

랍비 아키바가 말하기를, "내가(아키바) 바다를 (배를 타고) 여행하고 있을 때, 난파된 배 한척을 보았다. 나는 배와함께 물에 빠진 랍비가 되기위해 공부하고있는 한 제자가 걱정이 되었다. 그러나 내가 갑바도기아에 도착했을 때에, 그 랍비가 (되려고 공부하던 사람이) 내 앞에 앉아있는 것을 보았다. 그래서 그에게 물었다. "자네 어떻게 바다에서 용케 살아나왔는가?" 그가 대답하였다. "랍비여, 당신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셔서 파도들이 나를 쳐올려서 해변까지 (떠밀려) 오게 되었습니다."(기도) 내가 그에게 물었다. "자네는 어떤 좋은 일을 하였는가?"(선행) 그가 대답하였다. "내가 배에 올랐을 때에, 한 가난 한 사람이 나에게로 와서는 이렇게 울부짖었습니다. '나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내가 그에게 빵 한 덩이를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가 나에게 "당신이 당신의 빵으로 나의 생명을 구해주었니, 당신의 삶도 구원을 얻을 것이요"라고 말했습니다. 나(아키바)는 이 이야기를 "너는 네 떡을 물위에 던져라"라는 성경구절에 적용했다.¹⁰

Qoh.Rab.의 의도와 Tg.Qoh.의 채택

Qoh.Rab.가 수집될 무렵인 10세기 즈음의 유대인의 삶은 땅에 정주하지 못하고, 유럽의 이곳저곳을 떠돌아 다니던 무렵이다. 한 나라에서 안정된 지위를 얻지 못한 유대인들은 본토의 민족들로부터 배타적인 대상이 되었다. 유대인은 스스로 살아가야만 했다. 그러므로 유대인 내부의 결속력이 강해지고, 유대인의 문제를 유대인 안에서 해결하려는 노력이 강했다.

뿐만 아니라, 성전이 무너지고 제사장이 없는 시대에 "십일조"는 "즈다카"צדקה(구제헌금)로 발전하였다. 이전의 십일조가 제사장들을 먹여살리고, 한편으로 가난한 사람들의 구제하는데 사용되었다면, 제사장이 없는 시대에는 전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의 구제하는 구제헌금으로 그 쓰임새와 이름이 바뀌어진 것이다.¹¹

10. קהלת רבה י"א א"

11. Ben M. Edidin, *The Ideal of Zedakah;: Why Jews Cherish it With Such Great Devotion* (New York: Bureau of Jewish Education, 1930), 12-17.

*Qoh.Rab.*에서는 정치적으로나 사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유대인 공동체가 기도와 구제를 통해서 서로 도움을 주고 받기를 권하고 있다. 그리고 이 선행은 반드시 훗날에 보상을 받을 것이라는 격려를 하고 있다.

*Qoh.Rab.*가 편집될 때의 유대인의 상황이나, *Tg.Qoh.*이 편집될 때의 유대인의 상황은 크게 변한 것이 없다. 그러므로 *Tg.Qoh.*은 *Qoh.Rab.*의 구제의 가치를 그대로 차용하여서 구제의 의무와 구제의 선행이 가져다주는 보상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다.¹²

16세기 이전 중세시대의 유대인의 삶의 정황

로마가 유다땅의 주인이 된 이후로, 유대인은 로마 제국의 구석구석으로 자의로 또는 타의로 이주하기 시작하였다. 십자군 시대 이전에 이미 전유럽에 정착한 유대인들은 5-6세기에는 한때 유럽의 나라들 특별히 이탈리아, 프랑스와 독일에서 환영을 받았다. 유대인들은 유럽의 사회에서는 아직 존재하지 않았던 상인계급의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같은 시기에 스페인의 경우에는 유대인에게 개종을 강요하기도 하였다. 비단 스페인 뿐 아니라, 많은 유럽의 나라에서는 유대인에게 토지를 팔지 못하도록 금지하였고, 유대인 추방법 제정되기도 하였다. 1215년에는 교황 인노센트 3세가 유대인에게 황색 배지를 달아야한다는 법령을 제정하였고, 11세기 이후 유대인들은 공공연히 게토로 강제 이주를 당했다.

르네상스 시대와 그 이후로도 여전히 유대인들은 유럽의 나라에서 정치적인 변동에 따라서 추방과 귀환을 반복하였다. 유대인들을 경멸하는 "마라노" *Marano* ("돼지")라는 말이 생겨나고, 종교재판에 회부하여서 경제적인 타격을 입혔다. 1516년에는 유대인을 완전히 격리시킬 최초의 게토가 베네치아에 생겼다.¹³

12. Yitzhak I. Broch, *Koheleth* (Jerusalem: Feldheim, 1982), 163.

13. Max I. Dimont, 이것이 유대인이다 (trans. 김영수; 서울: 한국기독교문학연구소, 1982), 229-57.

결론-Tg.Qoh. 11:1이 주는 교훈과 목적

1516년에 베네치아에서 유대인들을 격리시키는 계토가 생겨나고, 1517년 같은 베네치아에서 *Tg.Qoh.*이 출판되었다는 것은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대인들의 삶과 *Tg.Qoh.*의 편집자의 삶을 떨어뜨려서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준다.

성전멸망 이후, 중세 이전에도 그랬지만, 특별히 중세는 유대교의 사상을 랍비들이 이끌어갔다. 랍비들은 회당에서 메시아의 희망을 전하였고, 성서와 성서의 해석을 통해서 유럽전역에 있는 디아스포라에 구원의 역사를 전하였다. 랍비들이 전한 메세지는 메시아적인 종말의 메세지 뿐 아니라, 고통을 받고 있는 유대인들의 실제적인 삶에 위로와 격려를 주는 메세지를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반유대주의 사회 속에서 유대인들의 통일된 행동과 사상을 강조한다.¹⁴

1516년 이래로 베네치아에서 인쇄업을 하던 기독교인 봄버그는 유대교 출판사에서 고용되어서 유대인들의 성서들과 랍비들의 주석집들을 출판해 냈는데,¹⁵ 1517년에 출판된 *Tg.Qoh.*도 그 중의 하나이다. 그러므로 *Tg.Qoh.*에는 유럽전역에서 이 나라 저 나라를 떠돌아야하는 유대인들의 고통과 그들이 겪어야하는 실제적인 문제들에 대한 위로와 격려, 그리고 해답을 줄 필요가 있었다. *Tg.Qoh.* 11:1이 바로 그 대표적인 예이다.

8-10세기에 걸쳐 경험하였던 유대인 공동체사회의 고통에 적극적으로 *Qoh.Rab*가 응답하여서 전 11:1을 해석하였듯이, *Tg.Qoh.*은 전 11:1의 난해구절을 *Qoh.Rab.*의 아가다를 빌려와서 인용한다. 이것은 중세에 사회, 정치, 경제적인 모든 면에서 차별을 당하고, 계토에서 경제적인 제한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웃 유대인들의 경제적인 아픔을 모른 척하고 넘기지 말고, 적극적으로 구제하라"는 권면이다.

14. Hans Küng, *Judaism: Between Yesterday and Tomorrow* (trans. John Bowden; New York: Continuum, 1991), 128-74.

15. 봄버그가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인지에 대해서는 확실치 않다. 그러나, 봄버그는 *Tg.Qoh.*뿐 아니라, 바빌로니아 탈무드의 전권을 처음으로 출판해 내기도 하였다. 자기의 개인 출판사로 독립하고나서도 봄버그는 꾸준히 유대교에 관계된 문서들을 출판하는데 최선을 다했다. 그래서 유대학자들은 봄버그가 정치적인 이유때문에 어쩔수 없이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이었다는 가정을 지지한다. cf. Israel Bettan, *Studies in Jewish Preaching (the Henry and Ida Krolik Memorial Publications)* (New York: Hebrew Union College Press, 1939), 97-99.

Bibliography

Anchor Bible Dictionary. 6 vols. New York: Doubleday, 1992-.

Bettan, Israel. *Studies in Jewish preaching (The Henry and Ida Krolik memorial publications)*. New York: Hebrew Union College Press, 1939.

Broch, Yitzhak I. *Koheleth*. Jerusalem: Feldheim, 1982.

Dimont, Max I. 이것이 유대인이다. Translated by 김영수. 서울: 한국기독교문학연구소, 1982.

Edidin, Ben M. *The ideal of Zedakah;: Why Jews cherish it with such great devotion*. New York: Bureau of Jewish Education, 1930.

Holtz, Barry W. "Midrash." Pages 177-212 in *Back to he Sources: Reading the classic Jewish Texts*. New York: Touchstone, 1984.

Homan, Michael M. "Beer Production by Throwing Bread into Water: A New Interpretation of Qoh XI 1-2." *Vetus Testamentum* 52[2] (2002): 275-78

Knobel, Peter Stephan. "Targum Qoheleth - A Linguistic and Exegetical Inquiry." PhD diss., Yale University, 1976.

Kng, Hans. *Judaism: Between Yesterday and Tomorrow*. Translated by Bowden, John. New York: Continuum, 1991.

C.L., Seow. *Ecclesiastes*. Anchor Bible 18C. New York: Doubleday, 1997.

배철현. 타르굼 웅켈로스 창세기. 서울: 한남성서연구소, 2001.

אבות דרבי נתן

קהלת רבה

תרגום קהלת